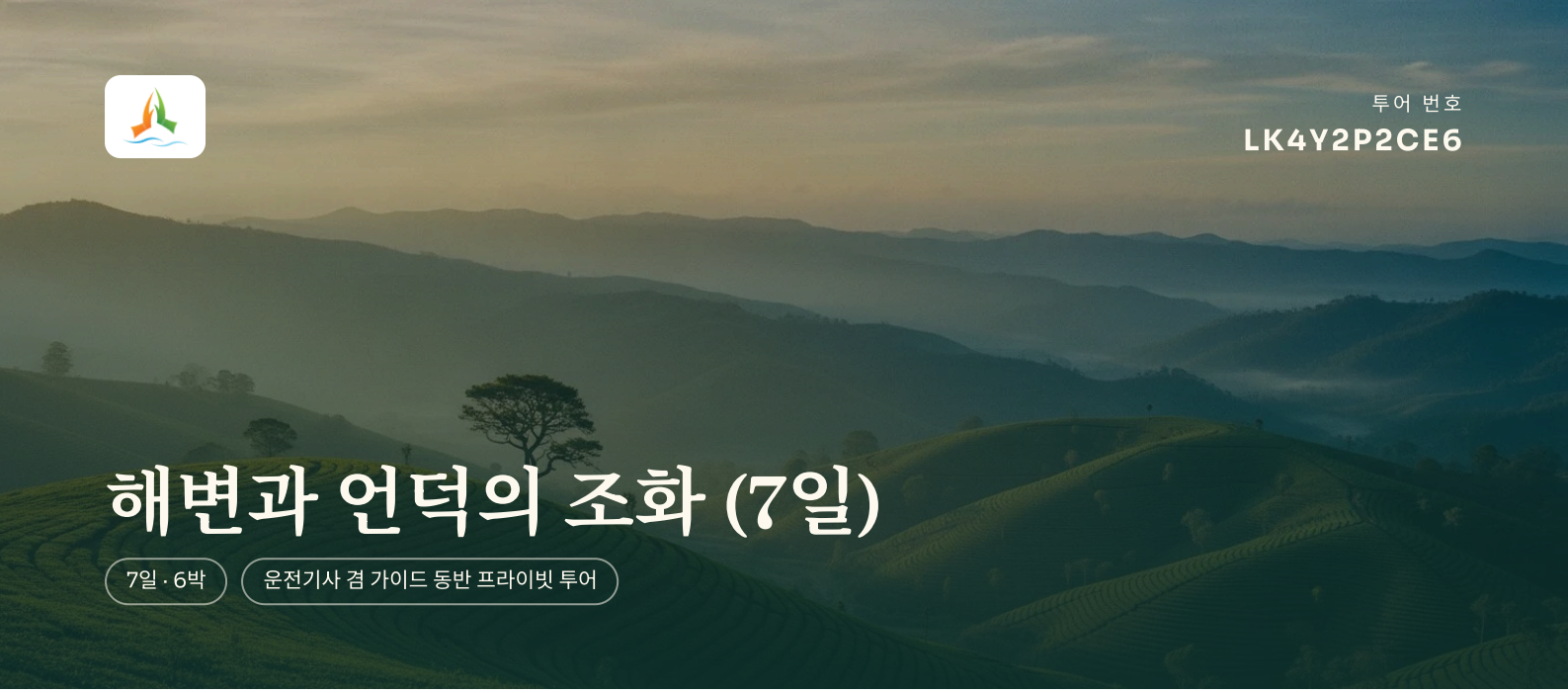


투어 번호
LK4Y2P2CE6

해변과 언덕의 조화 (7일)

7일 · 6박 |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

AI 생성 이미지 ·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

이 체험 소개

이 7일 투어는 스리랑카의 산악 지역과 남부 해안을 연결하여 캔디의 문화유산에서 출발해 누와라엘리야, 하푸탈레, 엘라의 차 재배 고지대를 거쳐 얄라 국립공원으로 내려간 후 비치와 고대 항구 도시 갈레에 도달합니다. 여행은 개인 차량과 전용 기사 가이드를 통해 이루어지며, 나누오야에서 하푸탈레 사이의 경관 열차 탑승이 포함됩니다.

이 여정 동안 캔디의 치아 사원을 방문하고, 실제로 운영 중인 차 농장을 걸으며 실론 차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살펴보고, 산악 지역 전역의 폭포와 전망대를 감상하며, 엘라 근처의 리틀 아담스 피크와 나인 아처스 브릿지로 등산하고, 얄라 국립공원에서 豹, 코끼리 및 기타 야생동물을 찾아 사파리를 진행합니다. 여행의 후반부는 해안으로 향하며, 코갈라의 stilts fishermen, 레카와의 거북이 부화장, 네덜란드식 갈레 요새, 그리고 아항가마 근처의 화이트 티 공장을 방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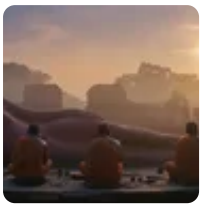
이 루트는 쿨한 산악 도시에서 따뜻한 남부 해변으로의 페이스 변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, 단 하나의 여행 내에서 문화, 풍경, 야생동물, 해안 생활의 혼합을 제공하고 마지막 날 공항으로 복귀합니다.



일별 여행 일정

Day 1 공항 → 캔디

콜롬보에 도착하면 전용 기사 겸 가이드가 마중을 나와 캔디까지 모셔다 드리며, 오후에는 캔디에서 문화 체험을 즐긴 후 호텔에 체크인합니다.



전통 공예 투어

보석 세공, 목공예, 바틱 염색 등 전통 공예와 관련된 작업장을 방문합니다.

AI 생성 이미지 ·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



캔디안 전통 문화 공연

북소리에 맞춰 불춤과 칼춤을 포함한 전통 캔디안 춤과 음악으로 구성된 1시간짜리 공연을 관람합니다.

Arian Zwegers · CC BY 2.0



피나왈라 코끼리 보호소

피나왈라는 서식지를 잃거나 부모를 잃은 어린 코끼리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, 코끼리들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

Bernard Gagnon · CC BY-SA 3.0

Day 2 캔디 → 누와라엘리야

캔디의 대표 종교 유적지를 방문하고 차 농장을 둘러본 뒤, 고지대 마을인 누와라엘리야로 이동하는 하루입니다.



불치사(불佛齒寺)

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16세기에 부처님의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으며,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홀과 조각된 기둥이 특징입니다.

A.Savin · FAL

차 공장 및 플랜테이션

1824년 왕립 식물원에서 처음 차나무가 심어지고, 이후 1852년부터 제임스 테일러에 의해 상업적으로 발전한 실론티의 생산 과정을 직접 살펴봅니다.



누와라엘리야 시내

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인들의 주요 고지대 휴양지였던 이곳에는 코티지와 빌라, 저택들이 남아 있으며,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과 빅토리아 여왕 공원, 그레고리 호수 등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.

Abdul malik77 · CC BY-SA 4.0



람보다 폭포

스리랑카에서 11번째로 높은 폭포로, 푸셀라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. 중간 부분은 A5 도로에서 바로 보이며, 상단 부분은 다리 근처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볼 수 있습니다.

A.Savin · FAL

Day 3 누와라엘리야 → 엘라

하푸탈레를 거쳐 엘라로 이동하며, 고지대 전망대와 식민지 시대 건축물, 그리고 경치 좋은 기차 여행을 즐깁니다.



립톤스 시트

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전망대 중 하나로, 우바, 사바라가무와, 중부, 동부 지방까지 내려다보이는 전경을 자랑합니다.

Kapidis (talk). The original uploader was Kapidis at English Wikipedia. · CC BY-SA 3.0

아디샴 방갈로

1900년대 초에 지어진 튜더 양식의 저택으로, 하푸탈레 근처의 아름다운 정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

세인트 앤드루스 교회

네오고딕 양식의 교회로, 많은 영국인 차 농장주들이 안식을 취하고 있는 묘지가 있습니다.

난누오야-하푸탈레 기차 여행

차 농장과 안개 자욱한 마을, 산악 풍경을 지나 하푸탈레로 향하는 경치 좋은 기차 여행입니다.

Day 4 엘라 → 얄라

오전에는 엘라 주변을 트레킹하고, 오후에는 얄라로 이동하여 사파리를 즐깁니다.



리틀 아담스 피크, 나인 아치스 브리지 & 데모다라 기차역 트레킹

차밭과 바위 지대를 지나는 트레킹으로, 리틀 아담스 피크에서의 전망을 감상하고, 나인 아치스 브리지를 건너며, 독특한 루프형 선로 구조로 유명한 데모다라 기차역을 방문합니다.

AI 생성 이미지 ·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



얄라 국립공원 사파리

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에서 3시간 동안 사파리를 즐기며, 표범, 물소, 늘보곰, 코끼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날 기회를 가집니다.

Ranmith Welikala · CC BY-SA 4.0

Day 5 얄라 → 아항가마

남부 해안으로 이동하면서 전통 어업 방식과 바다거북 보호 활동을 살펴봅니다.



코갈라의 스틸트 피셔맨(막대 낚시꾼)

해안가 장대 위에 걸터앉아 낚시를 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보고, 이 전통 어업 방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들어보며, 특히 해질 무렵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

Bernard Gagnon · CC BY-SA 3.0

레카와 바다거북 부화장

스리랑카 해안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의 바다거북 5종에 대해 배우고, 야간 거북 관찰 투어에 참여하거나 부화장에서 자원봉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.

Day 6 아항가마 → 갈레 → 아항가마

갈레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 식민지 시대의 요새를 둘러본 후, 아항가마로 돌아와 차 공장을 방문합니다.



갈레 요새

포르투갈과 네덜란드 통치 시대에 건설된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로, 박물관과 등대, 네덜란드식 이름이 붙은 돌길 거리들이 있습니다.

Rovin Shanila · CC BY-SA 4.0



한두누고다 차 공장

버진 화이트 티 공장으로도 알려진 이곳에서는 손이 닿지 않고 찻잎을 따고 가공하는 방식을 볼 수 있으며, 이어서 차와 초콜릿 케이크 시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.

AI 생성 이미지 ·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

Day 7 아항가마 →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(BIA)

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 항공편에 탑승합니다.

포함 사항

포함

-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,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.
- Service of an English-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.
-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.

미포함

-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.
-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.
- Chauffeur Guide's Accommodation.
- Expenses of personal nature.
- Visa and Related Expenses.